

함께하는 **포인**
일등경제 **충북**

장애인먼저
충청북도

2018년도

감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감 사 보 고 서

감 사 개 요

- 감사구분 : 2018 회계년도 정기감사
- 기 간 : 2019. 1. 22(화) 16:00
- 장 소 : 충북체육회관 4층 중회의실
- 감사내용 : 불임과 같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76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감 사 자 : 오 원 근 (서명)

장 종 훈 (서명)

감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76조 1항에 의거 2018년도 충북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사업부문과 회계부문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부문보고입니다.

주요사업인 조직정비 및 체계화와 전문체육 육성지원, 국·내외 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장애인생활체육 저변확대,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 장애인운동선수 취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체육회 조직정비 및 체계화에서

- 대한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에 따른 이행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제 규정을 총 22건 개정과 제정을 하였고

- 충북장애인공도협회가 추가 가맹되어 총 31개(29개 경기단체, 2개 체육단체)의 경기단체가 가맹되었습니다.

- 시·군 지부는 괴산군과 제천시 지부가 설립되어 총 10개 시군으로 단양군의 지부설립이 남아있습니다. 단양군에도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설립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리단체로 지정된 조정, 파크골프의 새로운 임원 구성으로 조속히 정상적인 협회가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촉구합니다.

○ 다음은 장애인전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임지도자 8명 배치와 전국장애인(동·하계) 체육대회를 대비한 훈련기간 동안 14명의 단기지도자 배치로 강화훈련을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과 종목별 6차에 걸친 훈련비 지원, 포상금 지급 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제38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와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 2위의 쾌거를 올린 뜻 깊은 한해로 평가됩니다.

○ 국내·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으로

- 지난 10월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에서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24개 종목 624명(선수 427명, 임원 197명)이 출전하여 금 112개, 은 84개, 동 79개를 획득해 6관왕 1명, 5관왕 2명, 4관왕 1명, 3관왕 18명과 2관왕 15명을 배출하며, 대회신기록 8개, 한국신기록 37개를 수립해 종합점수 159,878점을 획득하는 경기력으로 당당히 종합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 비해 선수가 131명 적게 출전하였음에도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최상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 그리고 지난해 5월 우리지역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한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11개종목 181명(선수 151, 임원 130)이 출전해 금 52, 은 39, 동 52개를 획득하며 경기도와 대등한 경쟁을 펼쳤으나 아쉽게 종합2위를 차지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지도자 13명, 선수 17명 총 30명에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국제대회 참가지원으로는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본도 출신 역대 가장많은 국가대표 18명이 출전해 볼링 이근혜 선수의 2관왕 등 금 4, 은 7, 동 5개를 획득하는 최상의 경기력으로 대한민국 종합2위 달성의 수훈을 세웠으며, 인도네시아 오픈탁구대회에 탁구실업팀 6명이 출전해 금 2, 은 1, 체코에서 열린 장애인양궁세계랭킹토너먼트유럽컵에서는 양궁실업팀 구동섭 김미순선수가 출전해 금 1, 은 1, 슬로베니아 탁구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문창주 감독 박홍규·김군해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은메달을 각 1개씩 획득하고, 태국 치앙마이 장애인탁구오픈대회에 탁구실업팀 7명이 출전해 금 2, 은 2, 동 2개를 획득하며 충청북도의 위상을 세계에 떨쳤습니다.

- 또한 종목별 전국대회에 17개 종목 37개 대회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 2018년 충청북도지사배 전국대회는 5개종목(론볼, 당구, 펜싱, 게이트볼, 수영)을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는 충주사과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충북컵 전국휠체어럭비대회, 충청권장애인체육회 체육대회를 개최와 볼링·당구·골프 도대표 선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 장애인생활체육저변확대입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종목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17개 대회 출전을 지원하였으며,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0개소, 어울림대회 10개 대회와 동호인클럽 44개를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활동으로 생활체육지도자 26명이 연 7,096개소에서 72,632명의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을 지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도내 전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은 장애인체육의 변화이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은 생활이며 재할”이라는 슬로건에 맞도록 더욱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2019년도 생활체육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은 평가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질책하며 C등급으로 인한 충북 생활체육 활성화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입니다.

- 지난해 9월 5일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한 제12회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11개시·군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충북장애인의 축제로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 확대와 대회운영, 그리고 개최지 선정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비장애인 도민체전에 버금가는 행사로 변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길 지적합니다.

○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에 있어서는

- 2018년은 중국 흑룡강성의 국제스포츠교류 사업계획 취소 요청으로 인해 장애인스포츠교류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장애인 체육활동 교류와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전문을 넓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체육회에서는 사업취소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다른 교류국을 물색하여 재추진하는 방안으로 장애인체육인들의 우호증진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국제스포츠교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육 및 연수에 있어서는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상 하반기 역량강화교육과 장애인 스포츠권익보호 인력풀 워크숍을 통한 인권교육과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그리고, 4대 폭력예방 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고, 충북 장애인체육유공자 연수를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관련으로 1차 경기단체와 시군지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계패럴림픽 개최식과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고, 2차 사무처 직원들과 실업팀 일동은 휠체어컬링과 아이스하키를 관람 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였습니다.

○ 장애인운동선수 취업관련으로

- 충북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운동선수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2017년 3월 15일 체결한 후 2017년 27명의 선수, 2018년 제니스월드 2명, 셸트리온 1명, 에코프로 22명 총 25명이 취업 하였습니다.

- 체육회는 고용에 만족하지 않고 소속업체 해당종목 운동경기부 창단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기업체 소속감을 부여하고 장애인 본인의 애사심 고취로 인한 사기진작과 도내 향토기업으로 장애인체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주문합니다.

□ 회계부문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 세입은 예산액 5,856,613,000원 중 도비보조금 4,915,969,000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기금 799,470,000원,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7,700,000원
문화체육관광부 69,212,000원
충북지역개발회 15,000,000원,
장애인고용공단 30,000,000원,
지도자 퇴직적립충당금 1,262,000원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883,225원으로
총 5,839,496,225원 이며,
- 세출은 세입액 5,839,496,225원 중 5,579,871,320원 집행,
- 차인잔액 259,624,905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211,577,060원과
이자세입 882,992원은 충청북도에 반납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34,752,850원과
이자세입 192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반납,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잔액 14,680원은 충청북도에 반납,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고용장려금 11,135,090원,
지도자 퇴직적립적립충당금 1,262,000원과
지역개발회 이자수입 41원은
특별회계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2.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 세입은 예산액 801,588,000원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370,452원,
그 외수입(종합체육대회 격려금 수입 등 장애인고용장려금) 82,900,000원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사업비 잔액) 589,752,192원
기타 회계전입금(퇴직적립금) 127,424,080원으로
총 800,446,724원 이며

- 세출은 세입액 800,446,724원 중 129,086,964원을 집행,
차인잔액 671,359,760원으로 익년도('19년도)로 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 회계집행은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적용 집행하였음을 감사자료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 종합의견

○ 감사결과 각 분야에서 관련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여 사업계획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예산편성과목에서 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감안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에서 사업종료 후 2개월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정산시점이 늦어져 반납금 확인 및 처리가 지연되어 경기단체 정산지침을 강화하여 시정되기를 바라며

- 집행잔액 관련하여 일부 사업별로 예상치 못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여비를 국내여비로 변경하고, 각종 입찰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알뜰한 집행상황을 느껴지나, 잔액발생에 따른 시정보완으로 예산 수립시 산출기초에 중점을 두어 보다 신중하게 집행되어 잔액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장애인체육 미 설립시군 단양군의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2개 관리단체(조정, 골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하여 도체육회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기감사(3년주기)에 지적사항에 나타나듯 규정 개·제정을 적기하여 체육회업무에 차질없도록 지적합니다.

특히 종합2위를 달성한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대종목은 27,110점을 획득하며 전국체전 8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토록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 충청북도와 가맹경기단체 각 유관단체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충북선수단이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2017년 종합우승에 이어 2018년 전국장애인체전 종합2위 달성의 원동력은 실업팀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관리, 장애인선수 직업 창출 등 충청북도장애인체육 발전의 근간이라 생각되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합니다.

2019. 1. 22

감 사 : 오원근, 장종훈